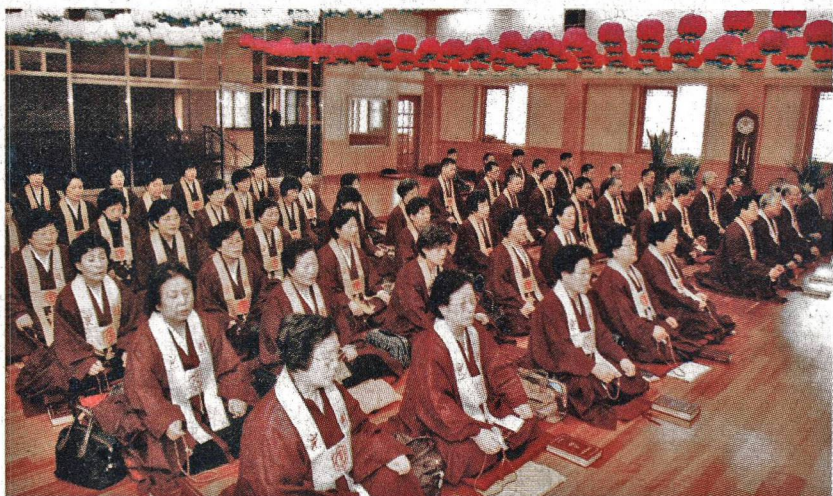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중단입니다.

충지중, 제73회 춘계 강공회 14일부터 개최 종단발전위한 다양한 논의



▲충기 37년 강공회 모습.

사회 연석회의에서는 과년도 통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유지재단 이사 선출, 감사선출, 등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복지재단 회의에선 결산 심의와 함께 임원선출 이사 건, 등의 토의가 열린다.

이와함께 중앙총회의에선 과년도 통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종단 산하 각 기구 임원의 선출 추천 건,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또 승단총회에선 각 기구 임원 선출과 종단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충지중은 이번 강공회에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종단운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입안에 반영, 종단중흥의 시급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교 충지중(통리원장 원송)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제73회 춘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춘계강공회에서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 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결산을 심의 결의하고, 종단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강공회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복지재단, 중앙총의회, 승단총회 등의 주요 일정으로 진행된다. 원의회, 재단이

종립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 발족 '동해 중흥 위한 10대 비전' 제시

충지중 종립 동해중학교를 일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는 3월 11일 총동문회(회장: 이진복 국회의원, 수석부회장: 김진도)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종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동을 가졌다.

발전위원회는 이날 모임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발족과 함께 회장에 김진도 동해중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부회장에 김명진 동해중 교사를 선출했다.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는 "동해중학교가 과거 부산의 명문 중학교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나 최근에는 과거의 명성이 퇴색한 점이 없지 않다"고 언급하고 이의 타개를 위해서 종단 및 교직원, 학부모, 총동창회 등을 아우르는 통합기구가 필요했다"고 설립 이유를 밝혔다.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 김진

도 위원장은 "동해의 찬란했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1만 6천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조직 체계화와 기금 조성, 각계 각층의 동문 연대, 등의 사업으로 튼튼한 총동창회, 힘있는 총동창회, 비전있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총동창회 조직 강화 △동해 커뮤티티 조성 △지역사회의 국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양성 요람의 구현 △동해 중학교 발전기금 조성 △실력있는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공부하는 학교 문화' 창조 △총동창회 홍보 강화 △재단과 종단 및 학교와 총 동창회간 협력관계 강화 △유능한 동문 인재 육성 △멘토링 확대 △동해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사 정립, 등의 '동해 중흥을 위한 10대 비

전 전략'을 제시했다.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 김명진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협의한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협의 되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은 물론 종단 및 재단, 총동창회 임원단에도 여과없이 전달돼 동해중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우리 17,000여 동해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불멸 부당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는 향후 구체적 계획과 관련해 △학교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의 지원 유도 △40여년의 전통에 부응하는 명문사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바라는 질 높은 학교상 구현 △학교 위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풍토 조성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회의를 내실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학부모회의 정례화 추진 △어머니 독서회의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학교 문화 유도 등이 거론되었다.

이날 위원회 결성 모임과 함께 동문회 대표, 학부모 대표, 종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마련되었다.

동창회 대표 측과 학부모 대표 측은 "재단이 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번 발전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종단, 학교, 동문회, 학부모들이 합심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12면)

'경제난 극복 · 국민화합 기원법회' 봉행 원송 통리원장 등 1000여명 참석



▲3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봉행된 이명박 대통령 초청 '경제난 극복 · 국민화합 기원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3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경제난 극복 · 국민화합 기원대법회'를 개최했다.

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비나눔 모금을 통해 1억5000여 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고통해소에 불자들이 앞장서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고 계층간의 소통과 상생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뜻을 모았다"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자비심으로 이웃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애쓰고 서로 위로하는 따뜻한 사회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관스님은 이어 "3월 27일 전국 각 사찰의 초하루법회를 '경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1배100원 모금법회'로 개최할 뿐만 아니라 희망의 등달기, 실직자 희망복 템플스테이 개최, 종무원

인턴제 도입 등 여러 실천방안을 통해 고통을 나누어 희망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사회가 되고, 궁극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160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후국불교로써 국난극복에 앞장서 왔다"면서 "그 전통을 이어 전대미문의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불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이명박 대통령 내외, 충지중 원송 통리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상반기 49일 불공 8일 회향

"나라안녕, 부국강병" 기원

불교충지중은 오는 8일 전국 사원에서 충기 38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 불사를 봉행한다.

종조법설집에는 "49일 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국가 발전과 호국에 있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라고 설명해 있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충기 4년인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으며,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실시된다. 올해 하반기 49일 불공은 내달 28일 입제한다.



충지사 충지서예교실이 개강했다. 매일 2째주 월요일 1시 30분 문화센터 5층에서 열리는 서예교실은 붓 잡는 법같은 초보과정을 비롯해 운필법, 서체연습 등 다양한 과목이 준비돼 있다.

종조법설

자주적 인격 체현이 불교 목적

불교의 목적은 내세주의적인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방편(方便)이며, 현재에서 자율적(自律的)이고 자주적(自主的)인 인격을 체현(體現)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즉, 심중 번뇌(煩惱)와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인생의 진리를 깨쳐서 절대안락(絕對安樂)의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 참언편

제73회 춘계강공회

금강같은 정진, 교화 혁신과 종단 발전...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충기 38년 4월 13일(월)~4월 16일(목)
- 장소 : 불교충지중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충지중 통리원장 원 송



사설

제73회 춘계 강공회에 임하는 마음가짐

올해로 73번째 강공회를 맞는다. 금년 춘계강공회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회의기구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말할 것도 없고 대안제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단 발전을 위한 방안과 중장기 계획이 집행기구 뿐만 아니라 심의·감시기구에서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기대해 본다. 그런 자리가 바로 강공회이다. 모두가 동반자이자 공생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강공회 일정 속에는 상생과 협동, 조화의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강공회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서로가 경청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서로의 주장이 그르다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이어서도 아니 되고, 무조건적이어서도 곤란하다. 나를 낮추는 자세, 상대를 높이는 태도가 강공회에 임하는 제일 첫 번째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부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강공회의 일정과 내용은 그다음의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에 앞서 먼저 강공회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성공적인 강공회로 이끌 수 있는 바탕이다. 마음가짐이 회의나 법회, 경강공 등 모든 일정에 공히 적용되는 덕목이다. 모든 일정이 만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용이 조금 보잘 것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면 응용이 가능한 좋은 재료가 될 것이요 훌륭한 강공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비하는 입장에서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나은 강공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강공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정성과 기쁨으로 손님을 더욱 따뜻하게 맞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강공회 일정 가운데 모든 승직자(僧職者)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각별해야 할 것이며 스승으로서의 위엄(威嚴)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고 일어나고 씻고 먹는 것에서부터 법회, 경강공과 불공, 회의까지 모든 일과들이 수행이요 경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 교양대학, 범종단적 참여 필요

2009년도 1학기 불교 교양대학이 서울 총지사와 부산 정각사에서 각각 개강하였다. 종단내 불교 교양대학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2년째 접어들었다. 요즘 불교 교양대학을 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니다. 불교 각 종단과 웬만한 사찰에서는 모두 불교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교 교양대학이 해를 이어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총지종 내의 불교 교양대학은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였다. 불교 교양대학이 보편적인 포교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종단적 협조와 참여의 부족으로 귀결되었다. 때문에 불교 교양대학 운영 주체들은 강의의 위한 독립적인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외 홍보도 하기 어려웠다. 권유와 참여의식의 부족으로 수강생 확보조차 쉽지 않아 더욱 곤란을 겪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교 교양대학은 2년째 접어들었다. 교양대학은 이제 종단 내 신심있는 교도들이 구심점이 되면서 새로운 종단문화 창출의 기틀이 되고 있다. 또 기존 교도 외 젊은 층들이 수강생으로 등록하는 등 발전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교양대학이 포교의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포교의 중요한 수단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포교를 떠나서 바른 법을 전하는 것은 종단의 기본적 사명이다. 불교 교양대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범종단적 각성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획연재 敎史를 통해 본 宗祖 苑淨 大宗師의 가르침 ⑩ / 밀교연구소 · 종학연구실 공동

“법의(法衣)와 도량(道場)의 변천”(上)

법의(法衣)란 불교의 출가수행자들이 입는 옷을 말한다. 인도 승단에서 시작된 법의는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나라마다 색상과 형식이 다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의는 재가자들의 헌옷을 재단하여 기워 누빈 것으로 색을 빼고 탁한 색을 물들여 입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는 기후와 풍토 등의 관계로 삼의(三衣)를 갖추게 되었고, 가사(袈裟) 속에 내복(內服)인 승가지(僧祇支)나 복견의(覆肩衣), 속복(俗服) 등을 착용하였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옷을 통틀어 법의(法衣)라 하고 이 가운데 길게 걸치는 상의(上衣)를 가사(袈裟)라 하여 법의와 구별하였다.

총지종은 재가종단으로서 편의보발(便衣保髮)을 종단의 지표로 삼고 있다. 머리를 깎고 바랑을 메고 목탁을 쳐야 수행자인 것은 아니다. 본 종단은 대중 속에서 일반인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으며 실천하는 재가 수행자의 종단이므로 간편한 법의를 입고, 일반적인 가사 대신에 약식 형태인 금가사(襟袈裟)를 착용하고 있다.

이 금가사의 유래는 중국의 낙자(絡子)에서 비롯되었다. 낙자는 삼의(三衣) 중 하나로 가슴에 걸치는 가사인데 중국 당나라의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승려들이 인도에서 전래된 가사를 그대로 착용하면 사찰에서 업무를 할 때 매우 불편함을 보고 특별히 제작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금가사는 낙자와 비슷하나 주머니가 없다는 점이 다르고, 접가사와 비슷하나 두 겹으로 중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총지종의 가사와 법의는 밀교의 교리와 종단의 교의(敎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종단의 교상과 사상, 수행정신이 잘라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총지종의 법의(法衣)는 전통적인 한복의 도포식에 관복식을 가미하여 만들어졌다. 가사(袈裟)는 출가종단의 전통적인 가사와 달리 간편한 약식의 가사(襟袈裟)를 취하고 있다. 이를 금가사(襟袈裟)라 한다. 총지종의 법의(法衣)와 금가사(襟袈裟)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자.

1972년 11월 11일 서울 충정로 선교부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성사에서는 총지종의 법의(法衣)를 다음과 같이 결정 발표하였다.

“법의(法衣)의 의제(衣制)는 신라시대의 상의양식과 같이 의제 밑에까지 내려서 만들고 소매는 작은 흥타세매로 하며 색조는 백·황·홍·황의 4색으로 사중수법에 맞추어 착용한다. 가사는 금가사(襟袈裟)로 한다. 흑자색지(黑紫色地)에

육합상을 세 곳에 백색(白色)으로 자수(刺繡)를 한다. 목에 걸면 뒤 항부(項部)에 육합상이 보이고 전면은 양후부(兩脚部)에 육합상이 보이며 규격에 있어서 폭은 두겹으로 만들어서 반을 접는 것이 60cm5, 길이가 140cm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가사와 법의에는 전면에 한 개씩의 4지결(智結)의 흑색노끈으로 단추를 달아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종조 원정 대성사에서는 법의 양식에 있어서 큰 원칙을 두고 있었으니 바로 밀교의 사중법(四種法)에 근거한 것이었다.



▲ 사색법의(四色法衣) 초창기에는 사중법에 따라 법의를 사색으로 마련하였다. 오른쪽부터 식재법의 백색법의, 증익법의 황색법의, 경애법의 자색법의, 항복법의 흑색법의. 원정기념관 에 소장되어 있다.

식재, 증익, 경애, 항복의 사중법에 따라 법의를 사색(四色)으로 맞춘 것이다.

그러나 종조께서는 제정하지 6년만에 법의(法衣)의 의제(衣制)를 다시 바꾸셨다. 번잡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생활불교를 지향했던 총지종단의 입장에서 사색(四色) 법의의 사용은 일상적인 의식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로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잡밀적(雜密的)인 요소가 많아 자칫 무속신앙으로 오해를 받을만 했다는 점이 법의 개정에 크게 작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총기7년(1978) 4월19일 제11회 중앙총회 및 제9회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에서 법의에 대한 착용법이 개정되었다.

“첫째, 공식행사와 서원당에서는 검은 법의를 입고 기타 백·황·홍색은 사택에서 수법(修法)을 행할 때만 입는다. 둘째, 전수의 정복은 공식시간·공식행사·가정방문·기타 공무 집행시간 착용하고 그 외는 사복을 착용해도 무방하다. 셋째, 성하(盛夏)에는 상의만 흰색 브라우스로 대응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사색

법의의 의제와 사용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니, 주요 골자는 공식 법회에서 흑색 법의를 주로 착용한다는 것이었다.

사색 법의 가운데 흑색 법의만을 착용하기로 한 것은 1982년에 와서 일이다. 당시 총령이었던 목정 대종사께서 총기11년(1982) 4월13일 가사개착불사(袈裟改着佛事)를 올리면서 법의(法衣)의 의제(衣制)를 개정하였다.

“총령 및 대종사는 황색 금가사에 법의(法衣)는 자색(紫色)으로 하고, 모든 스

(佛事)를 닦는 것도 넓은 의미의 도량으로 쓰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보리(菩提)를 이루는데 계기가 되는 발심수행(發心修行)의 장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을 위한 별당(別堂)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사원(寺院)’의 다른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는 중국 수나라의 양제(楊帝)가 천하의 사찰을 도량이라고 개칭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절 전체를 도량이라 일컫고 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전에서는 수행자의 마음까지도 도량이라고 일컫고 있다.

『유마경』 『보살품』에서는 ‘정직한 마음, 믿음, 보리심 등을 도량이라 한다’고 하였다. 총지종에서 도량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사찰 경내의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다.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 총지종의 도량 명칭을 제정하시면서 도량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셨다.

“첫째, 대지와 건물이 재단소유로서 위치변경이 되지 않은 도량은 사찰로 지정하고 ‘사(寺)’자를 붙여서 사원명을 사용한다. 둘째,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전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도량은 이사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서원당(誓願堂)’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름을 짓는다. 예를 들어 ‘총지종 00사’ ‘총지종 00 서원당’이다. 셋째, 사원 내의 본존을 봉안하는 곳도 서원당이라고 불린다. 넷째, 사원당 건물이 종단의 재단소유가 되었거나 다른 곳에 건물을 매수 또는 건축했을 때는 사원명으로 변경한다. 다섯째, 교도의 방을 빌려서 수행교화하는 곳 또는 전세를 얻었다라도 스승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포교소(布敎所)’라고 한다.”고 하였다. 현재는 ‘00서원당’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찰은 없어졌고 모두 ‘00사’로 바뀌었다. 종단의 재정사정이 창종 초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 명칭이 있기 전에는 다른 명칭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다. ‘선교부(宣敎部)’라는 명칭이다. 창종 전후의 때다. 지금의 사원들은 대부분 재단소유의 대지 건물에서 도량명칭이 ‘00사’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00서원당’이라는 명칭이었다. 도량의 변천이 곧 총지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정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khhbud@paran.com)

(다음호에서도 법의(法衣)와 도량(道場)의 변천(下) 편을 계속해서 실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9년 3월 1일부터 3월 29일 까지

Table with 4 columns of donor names and amounts. Includes donors like 개천사 무명씨, 관성사 김성녀, 기로원 상지화, etc.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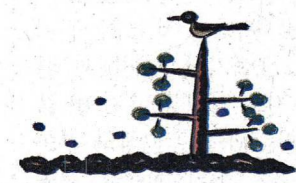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회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지금이 그때라네



숨이 막힐 정도로 햇볕이 따갑고 더운 여름 날, 용스님이 대나무 작대기를 들고 포고버섯을 말리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연로한 용스님이 팍팍을 푹푹 흘리면서 버섯을 뒤집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스님이 안쓰럽게 여겨서 물었다.

"어째서 젊은 사람을 시키지 않고 그 힘든 일을 손수하십니까?"

"남을 시키는 것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렇게 꼭 햇볕이 따가운 날 해야 합니까?"

"날이 더운 건 나도 아네. 허나 지금이 아니고서야 언제 포고버섯을 말릴 수 있단 말인가?"

-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한 알의 콩, 한 줌의 콩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밭으로 내려와 콩을 배부르게 먹고는 양 손에 콩을 가득 켜 채 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다.

그런데 실수로 한 알의 콩을 떨어뜨렸습다.



다. 원숭이는 한 알의 콩을 주우려고 그만 두 손을 펴고 말았습니다. 마침 놀러 나왔던 꿩과 닭들이 떨어진 콩알을 모두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 혜충 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깨어 있음



나를 아는 일은 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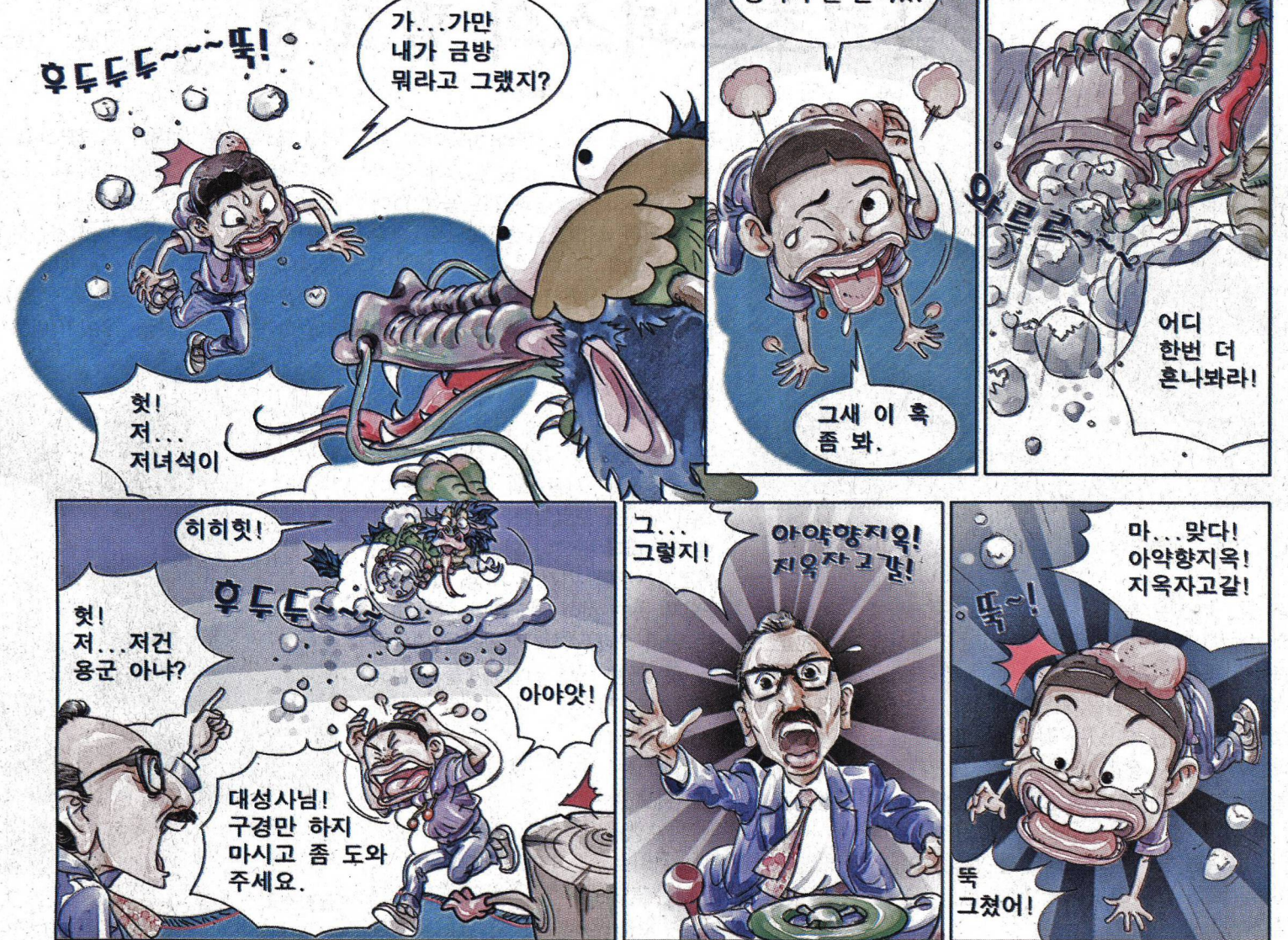
-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미고

"전수경 편 제 38화"

글:그림/정수일



이달의 명상 봄은 매화가 지 위에 있었네



종일토록 봄을 찾아 헤맸건만 봄은 보지 못하고 짙신이 닳도록 산 위의 구름만 밟고 다녔네. 지쳐서 돌아와 뜰 안에서 웃고 있는 매화향기 맡으니 봄은 여기 매화가 지 위에 이미 무르익어 있는 것을.

盡日尋春不見春 芒鞋踏遍嶺頭雲 (진일심춘불견춘 망혜판담릉두운) 歸來偶過梅花下 春在枝頭已十分 (귀래우과매화하 춘재지두이십분)

- 작자 미상 (중국 남송시대 한 비구니 스님)

정각불교문화센터 (Jeonggak Buddhist Culture Center) with a large illustration of a lotus flower.

불교교양강좌 (Buddhist Education Course)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건강강좌 (Health Course)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취미강좌 (Hobby Course)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어린이강좌 (Children's Course)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타극전 (Taegeukjeon)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오리나강좌 (Orina Course)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교육강좌 (Education Course)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생태영어 (Eco-English)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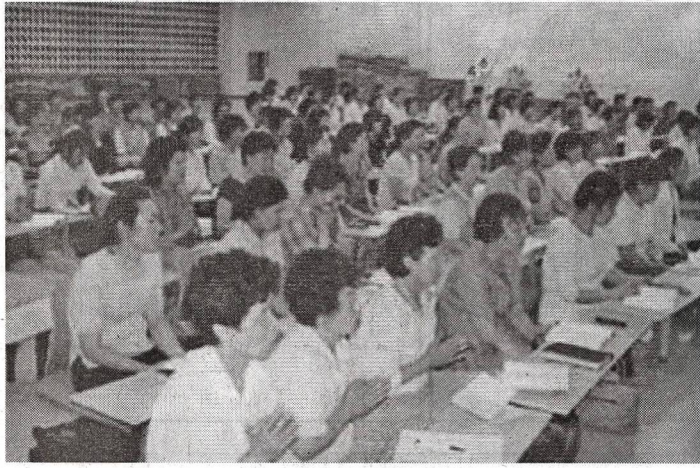
시군자강좌 (Sijunja Course) details including instructor, time, and fee.

수강안내 (Enrollment Guide) including a map of the center and contact information.

정각불교문화센터 (Jeonggak Buddhist Culture Center) building photo and a testimonial about the center's atmosphere.

민다리의 복지세상 ⑦

불교호스피스 필요성



▲ 불교호스피스 교육현장

불교 호스피스는 불교의 자비사상에 근거하여 불교적 방법으로 케어를 행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회생능력의 죽음이 직면한 모든 인간과 그 가족으로 연령, 인종, 종교이념을 초월한 '자비 실천 수행'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 호스피스의 실천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보다 높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상구보리 화하중생'이라는 대승적 이념 속에서 호스피스를 통한 수행의 실천이야말로 오늘날 호스피스 케어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불교호스피스는 불교의 자비회사 사무량심을 사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자비회사는 석가세존의 중생구제의 원력이며 무한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신적 원천이다. 이와 같은 자비회사의 정신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신이나 사상을 현실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불교호스피스는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

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둘째, 불교호스피스는 임종에 임박한 불자들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수행생활을 영위한 불자들이 임종에 직면하여서도 부처님의 가피력과 가호하심을 느끼고, 죽음이 삶의 가장 두려운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후생의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시달림과 같이 임종 이후의 서비스 프로그램은 오랜 전통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외병에서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속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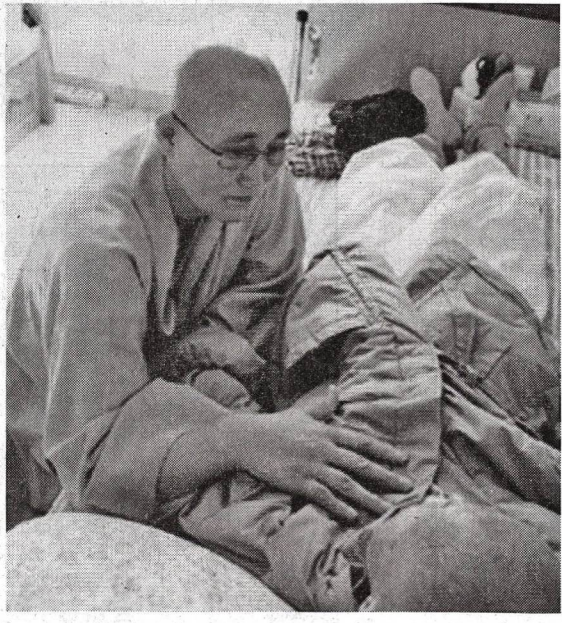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한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다. 불교호스피스는 먼저 오랫동안 수행생활을 영위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사찰 내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불교호스피스는 사찰의 운영과 신도들의 결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찰은 수행과 수행공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중생구제를 위한 서비스공간이기도 하다. 오랜 동안 수행생활을 해온 불자들이 죽음에 임박하여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의료적 한계로 좌절 할 때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관심을 가져 준다면 포교와 교화활동에도 긍정적으로

불교적 특성을 띠면서 독자적이고 정체성을 갖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교 교유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불교호스피스 서비스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불교적 호스피스는 중생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일체중생



▲ 호스피스 간호

이 모두 다 나의 부모이자 형제이다' 라는 불교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연민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이 소멸되어 항상 나의 부모·형제로 여기며 간호하는 것이 의학

의 근본정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너와 내가 틀이 아니라 한 뿌리라는 동체대비심인 자비사상은 호스피스의 정신적(영적) 케어의 개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종 시 정신적(영적)인 평화로움과 안락함을 지지할 수 있는 불교호스피스의 기도와 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호스피스의 방법인 것이다.

불교호스피스는 인간의 가장 직접적이며 근원적인 고통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불교호스피스의 특성은 생물학적 치료와 생명의 연장이 목적이 아니라 불교적 윤리와 가치를 토대로 고통 받는 중생을 자비로 구제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내세에 대한 희망과 비전으로 제시하는 종교적인 실천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불교호스피스, 사무량심(四無量心) 사회화 위해 긴급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종교적 측면 반영해야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한 신도들이 사찰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다'면 신도들의 결속과 신뢰는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교호스피스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불교호스피스는 다양한 불교 호스피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

최근 불교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 사회복지 영역의 프로그램과 동일해 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민간 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전환되고, 공유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공공복지시설의 위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교복지의 특성을 가미한 독자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호스피스는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총기동의보감

폐경과 여성건강



조선화 원장 (여성 미 한의원)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자궁이라는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으로 인해서 생리와 임신, 폐경 등의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고유한 생리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생리는 한 달에 한 번 자궁을 비워서 어혈과 인체의 노폐물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조절기능이 활성화됨으로 정상적으로 생리가 이루어질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궁이 병들어 건강한 생리를 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자궁질환으로 고생하고 급기야 자궁을 적출한 뒤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경험하듯이 자궁도 초경이 시작되고 난 뒤 임신과 출산을 거쳐가면서 성숙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면 폐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시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갱년기장애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폐경기여성들의 경우 생리가 끝남과 동시에 여성으로 기능도 끝나는 불안감과 상실감으로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생리를 연장하려는 호르몬요법은 건강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폐경을 맞이하고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극복해

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자궁을 비롯해 간이나 신장 등을 생식기와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즉 간의 울체된 기운을 풀어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신장의 부족한 정기(精氣)와 정혈(精血)을 북돋아 줌으로써 폐경이후 나타날 수 있는 하체기능약화와 요통을 개선하고 위로 기운이 차솟아 나타나는 상열감이나 불안, 불면, 우울증, 두통 등을 개선하게 됩니다. 여성스스로가 오히려 폐경이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유지해 가시는 것이 여성건강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도움이 되는 생활법

- 1. 우유 및 유제품이나 두유 등을 꾸준히 복용해 골다공증의 진행과 악화를 막는다.
2. 과일 및 채소 등을 적당 섭취해 혈액을 맑게 한다.
단 아래의 경우 과다섭취보다는 살짝 익혀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속이 냉한 경우 냉장과일이나 생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과다한 지방질의 섭취는 혈액을 탁하게 하지만 일정량의 단백질공급을 위해 단백질 함유의 살코기를 섭취한다.
4. 해산물(미역, 김, 다시마)등과 생선, 멸치 섭취
5. 콩이나 된장, 두부 등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상열감을 감소시켜준다.
6. 술, 담배, 카페인 등은 뼈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섭취를 제한한다.

* 도움이 되는 운동법

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여 위로 상승하는 열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제자리 뛰기, 빨리 걷기, 조깅, 수영 등이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속도를 내어 30분 이상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죽비소리 가족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

세간 사람들아,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나 부부간이나 그 밖의 모든 친숙간에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미워함이 없어야 하며,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주고 받아 탐내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하며, 항상 부드러운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대하여 이에 다투지 말아야 한다.

(무량수경 無量壽經)

이성미 조선화 원장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우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임신병: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약학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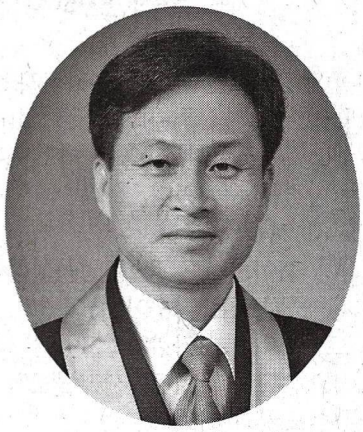
생혈액분석기
자동발광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작은온기

여성美한의원
비만 클리닉
-여성: 자궁 다이어트 -남성: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한남대학교
신사역3번출구
신인은행빌딩
신사역1번출구
도사대로
30M
20M
1분거리
STARBUCKS
대성미안의원
김남역

지상설법

부강한 나라(下)



화 령

(충양교육원장)

부처님께서 온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전통성왕의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의하여 법답게 백성을 다스리라. 그리고 임금이라도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법으로 다스리되 편견과 독단에 빠지지 말고 나라 안에 법답지 못한 행동이 없게 하라.”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여 나라가 다스려져야 하며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은 무엇보다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이 아무래도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에 관

련되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법조문에 의거하여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너무 무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 각자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바지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의가 상실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예의의 차원을 벗어나서 거의 패륜적인 행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고 스승이 제자에게 두들겨 맞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 상속을 노리고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할 짓입니까? 짐승도 제 어머니를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인데 인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예의의 부재로 인하여 매일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 예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 몇 만 불, 경제 성장 몇 퍼센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삶이 양적인 것으로만 해결된다면 그대도 간단하겠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꼭 돈과 경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가 실종된 각박한 사회에서 소득이 더 늘어봐야 그만큼 더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예의와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잘 사는 사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면에 눈 돌리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된 국력을 기르는 것은 예의와 충효 바로 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의와 인정이 사라진 각박한 사회에서 그가짓 국민 소득 몇 만 불 되어봐야 삶의 질이 더 나아질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려면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예절 교육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접촉할 시간이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바지국 사람들이 종묘에 제사지내고 조상을 받들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기고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선 서구에서 온 종교의 영향으로 부모 제사를 받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삶 속에서 부처님 말씀 실천함이 불도 이루는 길”

많은 사람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가 어머니에 따라 아이들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정숙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예의바르며 겸손하고 부지런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지국의 부녀들은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지국의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여성들이 어떠한가는 바로 국력과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바르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은 대부분이 어머니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상을 섬기고 받들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해준 조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에

도 조상의 은혜를 일깨워 주며 서로가 화목하게 지냄으로써 지금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여 내팽개치는 것은 참으로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모르는 일입니다.

조상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 나라와 국토에 대한 애정도 없어집니다. 오죽하면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기회만 된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며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는 태어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토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기도 합니다. 자기 살을 깎아 먹는 줄도 모르고 우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지국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참 걱정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침략이라는 것이 꼭 총칼 들고 쳐들어와야 침략이 아닙니다. 외국의 투기 자본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잠식하는 것도 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저속한 문화가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일종의 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계속 시달리면서도 큰 소리 한번 못치고 눈치만 보아야 하는 것도 침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 큼니다. 부처님의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나 자신부터 달라져야 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바른 정신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교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불교입니다. 꼭 선방에 앉아서 가부좌만 하고 있다고 해서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곧 도를 이루는 길입니다.

자기의 깨달음이 사회와 연관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도 사회와 관련을 짓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법열(法悅)에 도취해 있다면 너무나 불보라도 못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성도를 하시고 입멸에 들려고 하시다가 다시 생각을 바꾸어 대중들을 상대로 설법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이라도 앞장서 원칙을 지키고 근분을 다져가는 참된 국민으로 거듭나도록 서원하고 정진합시다.

열반

부처님의 연세도 여든이 되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강가강을 건너 바지족의 서울인 베살리에 이르렀을 때 장마철을 만났다. 그 해에는 인도 전역에 심한 홍년이 들어 많은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내기가 어려웠다.

여럿이 한데 모여 밥을 빌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베살리 근처에 각각 흩어져 지내도록 하셨다. 부처님은 아난다만을 데리고 벨루바 마을에서 지나시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은 흑산한 더위를 몹시 앓으셨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을 참으면서 목숨을 이어가셨다. 병에서 회복한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부처님은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계셨다. 아난다는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부처님의 병환이 중하신걸 보고 저는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대로 열반에 드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다 가르쳐 왔다. 법을 가르쳐 주는 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쇠했다. 내 나이 여든이다. 늙아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부처님은 베살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비구들을 모이게 한 뒤 석 달 후에는 열반에 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부처님은 거리에 걸식하러 나갔다가 거리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시며 이것이 베살리를 보는 마지막이라고 곁에 있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베살리를 떠나 파바리는 고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금세공(金細工) 촌다가 올리는 공양을 드시고 나서 다시 병을 얻게 되었다. 이때 촌다가 올린 음식은 부처님께 올린 마지막 공양이 되었다. 이 공양을 마치자, 부처님은 고통을 참으면서 쿠시나가라로 다시 길을 떠나셨다. 많은 제자들이 걱정에 잠겨 뒤를 따랐다. 이 길이야말로 부처님이 걸으신 최후의 길이 되고 말았다.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자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 늙고 싶다. 자기 사리수 아래에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깔아 다오.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겠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 다. 부처님은 한쪽에 가 울고 있는 아

난다를 불렀다. “아난다여, 울지 말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한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을 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 동안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다. 내가 간 뒤에라도 더욱 정진하여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라.”

아난다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

서 열반에 드신 다음 그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출가 수행자는 여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여래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러 줄 것이다.”

그날 밤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말라죽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사리수의 숲으로 모여 들었다. 이때 쿠시나가라에 살던 늙은 수행자 수바드라도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의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허둥지둥 사리수의

숲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아난다는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매우 괴로하십니다.”

하고 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수바드라를 가까이 오도록 이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말라. 그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설법을 듣고자 온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수바드라를 위해 설법을 들려 주셨다. 수바드라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수바드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된 것이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시간이 가까워 온 듯했다. 부처님은 무수히 모여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정한 음성으로 물어보셨다.

“그동안 내가 한 설법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든 물도록 하여라. 승단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물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묻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다. “어려워 말고 어서 들 물어보라. 다정한 친구끼리 말하듯이 의문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아라.”

이때 아난다가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행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등명 범등명(自燈明 法燈明), 물과 찻처럼 화합하라

아난다의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펴시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루지 말라. 물과 찻처럼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겹들지 말라. 함께 내 교법(教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道)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 나는 몸소 진리를 깨닫고 너희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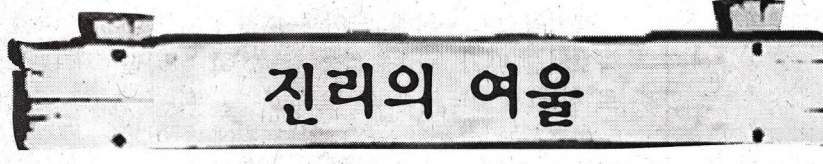
너희는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이나 진리대로 행동하여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한다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래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 평안히 열반에 드셨다. 진리를 찾아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출가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행 끝에 지혜의 눈을 뜨신 부처님, 사십오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몸소 자비를 구현한 부처님은 이와 같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은 육신의 나이 여든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어둔 밤에 등불처럼 중생의 앞길을 밝혀 비추고 있다. 이 지상에 인류가 살아 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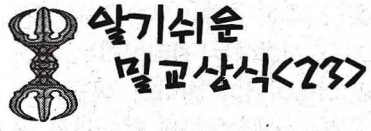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일일1회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밀교의 경전 ⑤

8~9C 판뜨라 밀교 등장 삼독심 긍정해 성불의 길로 인도

8세기 후반부터 9세기에 걸쳐서 밀교는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곧 판뜨라 밀교인 무상유가(無上瑜伽)밀교이다.

판뜨라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트라에 대신하는 말이다. 판뜨라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일찍 성립된 것은 《비밀집회(秘密集會) 판뜨라》인데 한문역으로는 시호(施護)가 번역한 《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教王經)》이 있다. 여기에서는 생기차제(生起次第)의 관법에 의한 즉신성불을 설하고 있다.

인도와 티베트에서는 《비밀집회판뜨라》를 방편·부(父)판뜨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반야·모(母)판뜨라에 해당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해바라판뜨라》를 들고 있다. 법호(法護)역 《대비공지금강대교왕의경(大毘空智金剛大教王儀軌經)》이 《해바라판뜨라》의 한역본이다.

부판뜨라계의 성전에서는 정신집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을 수행의 동반자로 하는 사상이 보여지는데 모판뜨라계에서도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하여 성력(性力·사티)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밀교의 최종단계에 나타난 경전은 불이(不二)판뜨라로 분류되는데 11세기에 성립된 《칼라차크라(時輪)판뜨라》가 대표적이다. 《시론판뜨라》는 모판뜨라가 성력을 중시하는 것을 비판하고 불교 본래의 계율 중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칼라차크라판뜨라를 마지막으로 인도에서의 밀교 경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으며 이후 밀교의 무대는 티베트로 넘어가게 되었다.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출현을 정점으로 밀교는 이른바 죄도밀교 쪽으로 기울었으며 성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했던 동아시아쪽에서는 이러한 판뜨라밀교가 발을 붙이기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다.

그 가운데에서 흔히 《이취경(理趣經)》이라고 불리는 《대락금강불공진실삼마야경(大樂金剛不空眞實三摩耶經)》 반야비라밀다이취품(般若波羅蜜多理趣品) (不空역)이 무상유가판뜨라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진언종에서는 《이취경》을 대표적인 상용경전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래 이경은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지만 비로자나불이 등장하고 각 단의 끝에 진언이 실려져 있어 밀교적 색채가 강한 경전인데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점이 특색이다. 번뇌라는 것은 없애야 할 대상으로서 모든 종교에서 중요시하지만 밀교에서는 인간적인 욕망도 우주의 대생명 현상의 하나로 보고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번뇌를 포함한 현실세계의 모든 것을 긍정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절대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상유가판뜨라의 이상이다.

《이취경》에서는 이러한 밀교의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탐욕이나 애욕, 분노의 마음을 긍정하여 그러한 것을 가지전환에 의하여 성불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성욕이 없으면 성불의 인(因)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불제자가 될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성욕을 어떻게 승화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성불의 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취경》의 첫머리에는 남녀간의 성애를 솔직 대담하게 표현하여 그 자체가 청정함을 역설하는 '17정정구'가 유명한데 그것은 깨달음의 길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종파에 따라서는 그러한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를 좌도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그 사상적 배경은 단순하게 숙단할 일이 아니다.

《이취경》과 함께 중요시되는 경전으로는 《소실지갈라경》이 있는데 흔히 《소실지경》이라 한다.

이 경전은 대일경계통의 경전으로서 분노군 다리보살이 집금강보살에게 진언행의 여러 가지 행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경에서는 모든 행법과 의식에 대한 것이 거의 망라되어 있어 중요시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천태밀교에서는 《대일경》·《금강정경》과 함께 밀교의 삼부대경(三部大經)으로 높이 받들고 있다.

회령(철학박사/중앙교육원장)

불교설화 <32>

아도화상의 전법

- 선산 도리사(桃李寺)

아직 겨울이라기엔 이른 늦가을이었다. 옷은 비록 남루했지만 용모가 예사롭지 않은 한 고구려인이 신라 땅 일선군(지금의 경상북도 선산)에 있는 부자 모례장자 집을 찾아왔다.

『어떻게 제 집엘 오시게 되었는지요?』 모례장자는 행색과는 달리 용모가 순수한 낮은 객에게 짐잡고 웅숭하게 대하면서도 일말의 경계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목호자라는 고구려 승려입니다. 인연있는 땅이라 찾아왔으니 나를 이곳에 묵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십시오.』

당시는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지 않은 때인 지라(눌지왕 때) 모례장자는 목호자의 불법에 관한 설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전생부터의 인연이었는지 아무래도 낯선客이 신비스럽고 큰 불도를 알고 있는 대인인 듯하여 지어 지어 밀실을 지어 편히 거처하게 했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중국에서 의복과 함께 보내온 향의 이름과 쓰는 법을 몰라 사람을 시켜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알아보게 했다.

이 소문을 들어 목호자는 사람을 불러 친히 일러줬다.

『이는 향이라는 것으로 태우면 그윽한 향기가 풍기지요. 만일 이를 태우면서 정성이 신성한 곳에까지 이르도록 간곡히 축원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난 뒤 나라에서는 목호자를 정하는 사신을 보내왔다.

『공주마마가 위독하옵니다. 백방으로 약을 쓰고 의원을 불러 치료를 했으나 전혀 효험이 없어 이렇게 모시러 왔사오니 어서 궁으로 함께 가주시지요.』

불법을 폐기 위해 숨어서 때를 기다리던 목호자는 때가 온 듯 선뜻 승낙하고 서라벌로 향했다.

목호자는 공주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렸다. 그윽한 향기가 방 안에 차츰 퍼져 가득하고 목호자의 염불이 끝나자 공주는 감았던 눈을 스프르 뜨면서 제정신을 찾았다.

왕은 기뻐하며 목호자에게 소원을 물었다. 『빈승에게는 아무것도 구하는 일이 없습니 다. 다만 천경림에 절을 세워서 불교를 널리 펴고 국가의 복을 비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왕은 즉시 이를 허락하여 불사를 시작해 했다. 목호자는 그때부터 숨겨 둔 불명 아도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아도화상의 어머니 고도령은 중국에서 온 사신 아골마와 연정이 깊어 아도를 낳게 되었다. 그 후 아도가 다섯 살이 되자 고도령은 아도를 출가시켰다. 총명하여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도가 16세가 되던 해 어머니 고도령은 아들을 찾아와 모든 사연을 이야기하고는 아도를 중국으로 보냈다. 아도는 중국에 가서 아버지 아골마를 만나고는 현창 화상 문하에 들어가 3년간 공부한 후 고구려로 돌아왔다.

어머니 고도령은 아들을 만나 반가웠으나 내색하지 않고 다시 신라 땅으로 보냈다.

고 홀쩍 그곳을 떠났다. 모례장자가 가는 길을 몰았으나 『나를 만나려거든 얼마 후 최순이 내려올 것이니 최순을 따라오시오.』라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 해 겨울, 과연 기이하게도 정월 엄동설한에 모례장자 집 문턱으로 최순이 들어왔다. 모례장자는 그 줄기를 따라갔다. 그곳엔 아도화상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신라불교의 초전지인 지금의 도리사 터였다.

『잘 오셨소, 모례장자. 내 이곳에 절을 세우려 하니 이 망태기에 곡식 두 말을 시주하십시오.』

아도화상은 모례장자 앞에 작은 망태기를 내놓고 시주를 권했다. 모례장자는 기꺼이 승낙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 곡식 두 말을 망태기에 부었으나 여인 일인지 망태기는 두 말은 커녕 두 섬을 부어도 차지 않았다. 결국 모례장자는 재산을 다 시주하여 도리사를 세웠다.

모례장자의 시주로 절을 다 지은 아도화상이 잠시 서라벌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절이 세워진 태조산 밑에 때아닌 복사꽃이 만개하여 눈이 부셨다.

아도화상은 이에 절 이름을 『도리사』라 칭했고 마을 이름을 도개마을이라 했다.

도리사에서는 지난 1976년 경내 화엄석탑 및 담장 석축을 정비하다가 아도화상 석상을 발견했다. 같은 해 탑 해체 작업 중 부처님 진신사리 1과가 출현해 전국 불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친견하고 세인들에게 화제가 됐다.

지금도 도리사 인근 마을에 가면 양과 소 천 마리를 길렀던 곳이라 해서 『양천골』 우천골이라 부르고, 도개동 웃마을에는 외양간이 있었다 해서 『우실』이라 부른다. 또 모례장자의 집터는 『모례장자터』 그리고 우물은 『모례장자샘』이라 하는데 모례장자샘에서는 지금도 맑은 물이 샘솟고 있다. 마을에서는 긴 화강암을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엮길래 짜 맞추어 놓았다.

『신라땅에는 천경림을 비롯하여 7곳의 큰 가람터가 있으니 이는 모두 불전(佛前)의 인연지로서 앞으로 불법이 깊이 전해질 곳이다. 그곳에 가서 대교를 전하면 응당 내가 땅의 개조가 될 것이다.』

아도는 어머니의 이같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며 불법을 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세상을 뜨고 새 임금 등장하자 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아도화상을 해치려 했다. 아도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모례장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경을 가르치고 설법했다. 많은 신봉자가 따르는 가운데 낮에는 소와 양을 1천 마리씩 길렀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아도화상은 행선지도 밝히지 않

고 홀쩍 그곳을 떠났다. 모례장자가 가는 길을 몰았으나 『나를 만나려거든 얼마 후 최순이 내려올 것이니 최순을 따라오시오.』라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잘 오셨소, 모례장자. 내 이곳에 절을 세우려 하니 이 망태기에 곡식 두 말을 시주하십시오.』

아도화상은 모례장자 앞에 작은 망태기를 내놓고 시주를 권했다. 모례장자는 기꺼이 승낙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 곡식 두 말을 망태기에 부었으나 여인 일인지 망태기는 두 말은 커녕 두 섬을 부어도 차지 않았다. 결국 모례장자는 재산을 다 시주하여 도리사를 세웠다.

모례장자의 시주로 절을 다 지은 아도화상이 잠시 서라벌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절이 세워진 태조산 밑에 때아닌 복사꽃이 만개하여 눈이 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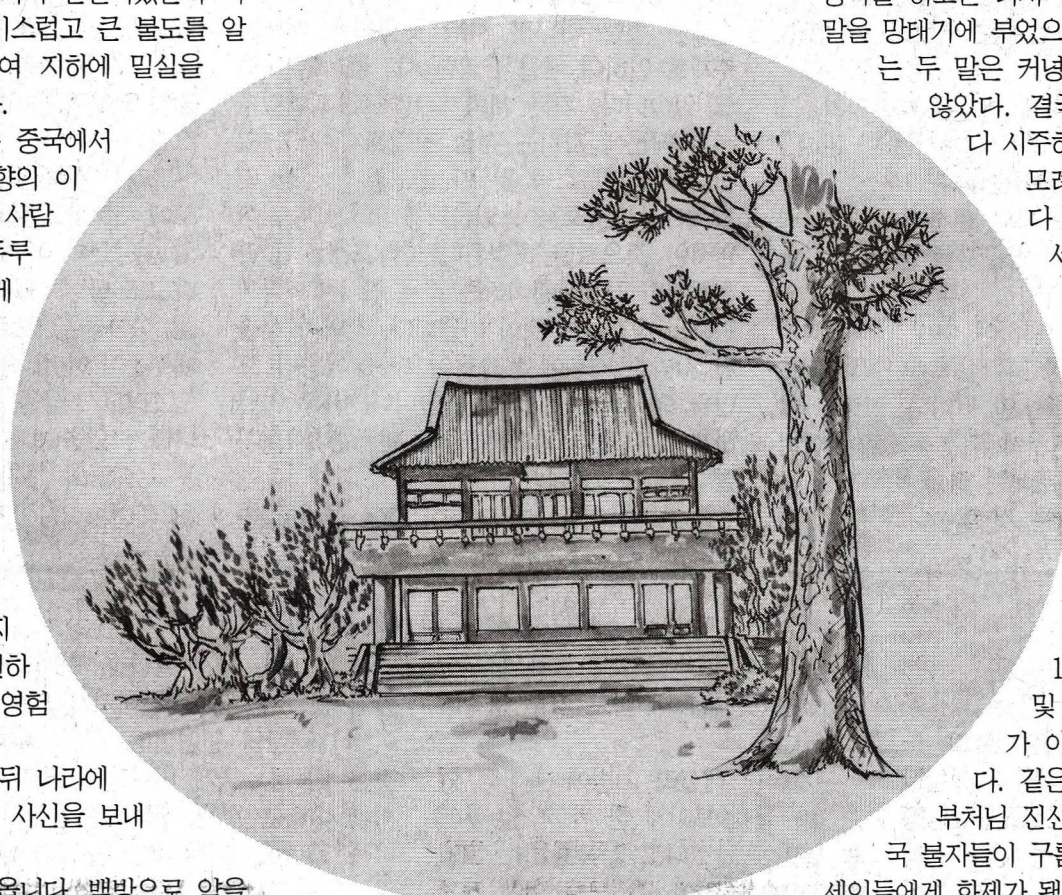
아도화상은 이에 절 이름을 『도리사』라 칭했고 마을 이름을 도개마을이라 했다.

도리사에서는 지난 1976년 경내 화엄석탑 및 담장 석축을 정비하다가 아도화상 석상을 발견했다. 같은 해 탑 해체 작업 중 부처님 진신사리 1과가 출현해 전국 불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친견하고 세인들에게 화제가 됐다.

지금도 도리사 인근 마을에 가면 양과 소 천 마리를 길렀던 곳이라 해서 『양천골』 우천골이라 부르고, 도개동 웃마을에는 외양간이 있었다 해서 『우실』이라 부른다. 또 모례장자의 집터는 『모례장자터』 그리고 우물은 『모례장자샘』이라 하는데 모례장자샘에서는 지금도 맑은 물이 샘솟고 있다. 마을에서는 긴 화강암을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엮길래 짜 맞추어 놓았다.

『옛 신라 땅이 유서깊은 가람터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오로지 불교를 널리 펴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던 한 스님의 대원력이 느껴진다』

- 심일화



판뜨라의 분류	대표경전	
소작(所作) 판뜨라	《소실지경》 《소바호동자경》 등	
행(行)판뜨라	《대일경》	
유가(瑜伽)판뜨라	《금강정경》	
무상유가(無上瑜伽)판뜨라	方便·父판뜨라	《비밀집회판뜨라》
	般若·母판뜨라	《해바라판뜨라》
	不二판뜨라	《칼라차크라판뜨라》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실시

총지중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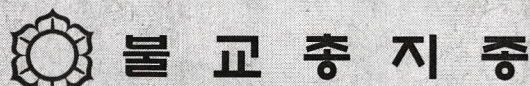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 02)3452-7485(016-651-8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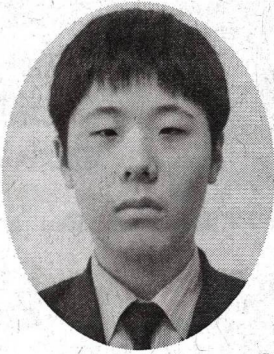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주소 : 강남구 역삼2동 776-2
문의 : 02)3452-7485 (016-651-80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총지문에



전민호
동해중 3-3반

난 우리집의 막내다.
그래서 그래서
난 귀여움을 많이 받는다.
그 귀여움이 모이고 모여
나에게 기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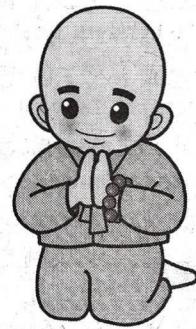
난 우리집의 막내다.
그래서 그래서
난 용돈을 많이 받는다.
그 용돈이 모이고 모여
나에게 기쁨이 된다.

막내

난 우리집의 막내다.
그래서 그래서
난 관심을 많이 받는다.
그 관심이 모이고 모여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난 우리집의 막내다.
그래서 그래서
난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 사랑이 모이고 모여
나에게 기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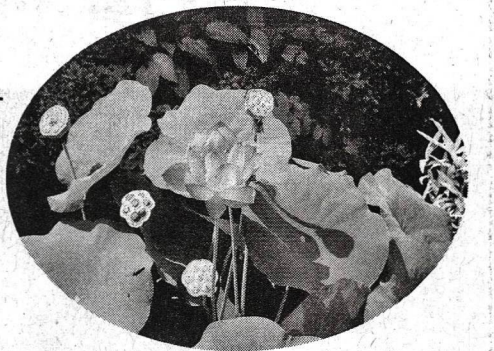
귀여움 용돈 관심 사랑
이중 날 가장 기쁘게 하는 건
관심과 사랑이다.



우리들의 이야기

만보사 연꽃

연꽃에 앉은 나비
세속을 깨우다
잠자리가 지고 가는 정토의 자비심아
연화봉 고집멸도*를
만보사*에 새긴다,
이슬을 먹고 사는
색깔없는 세월아
내에게 반쯤 내민 춤추는 연꽃 무늬
사미승* 관자놀이
억겁으로 퍼지다,



* 고집멸도: 불교의 근본 교리를 나타내는 말
* 만보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52-4번지에 있는 총지중 사찰
* 사미승: 만 7세 이상 20세 미만의 견승 승려

- 탁상달(동해중 교사)

이달의 추천도서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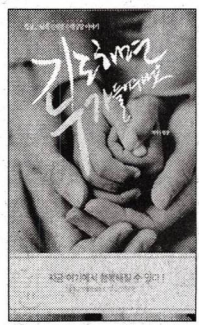
현일 지음/ 민족사



중도연기법을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풀어 쓴 책.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괴로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깨달음에도 중도연기법 공식이 있는데, 이 가르침만이 여러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렇기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세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현실의 실천적인 법이라고 강조한다.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나요

법상 지음/ 이출



사이버 생활수행도량 '묵탁소리'에 저자가 불교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울린 글을 엮은 책. 스님은 불교와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수행, 명상, 자연과 환경

을 주제로 쓴 진지한 깨침의 글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묵탁소리'는 현대인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 받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스님은 개인 이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질문에 명쾌한 해법을 내놓는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았을 것 같은 고민에 대해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답을 주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에 대해 다루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다.

유행경

중상 해남 지음/ 부디가야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 대승의 『열반경』이 부처님을 지나치게 신격화한 것에 반해 '피로하다', '눅고 싶다', '물이 마시고 싶다' 등 노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원시불전이라 불리는 아함경전에 포함되는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길고 하나로 정리된 경전기에 인간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가신 부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책을 통해 부처님과 함께 뜻있는 여행을 체험하고,

'거룩한 죽음' 대열반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사와 항렬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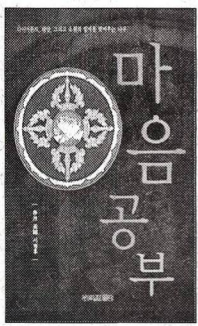
오소 리즈니쉬 지음/ 한동우울리/ 흥법원



불교의 선 사상에 의거, 삶의 지혜를 일깨운 명상서. 명상이 무리요이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난다고 한다. 명상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을 명쾌하게 밝혀 놓았다. 리즈니쉬의 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지혜로움을 얻길 바란다.

마음공부

서병후 지음/ 부처님 손바닥



많은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위대한 목표에 도달시키고, 질병에 시달리던 난치병 환자들의 질환을 말끔히 치유시킨 사례들을 기록한 책. 예비적 불법 수행, 주요수행, 역경을 깨달음의 수행으로 바꾸기, 매일하는 모든 수행을 일생단위로 통합하기, 마음공부 성공여부 재보기, 마음공부에서 지켜야 할 18가지 서약, 마음공부의 22가지 충고 등 7가지 요점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생활상식

▶ 낚은 양말을 겹쳐 손에 끼고 청소

구멍 뚫린 양말도 버리지 않고 청소에 활용할 수 있다. 손에 낚은 양말을 몇 장 겹쳐 끼고 창문이나 주방, 세면대, 바닥, 선반 등등 집안 여기저기를 닦는다. 더러워지면 한 장씩 벗겨서 버리면 된다.

▶ 진공청소기에 화장지의 심을 활용
현관이나 배란다처럼 직접 청소를 하면 노즐이 더러워질 수 있는 곳을 청소할 때는 노즐에 화장지의 심을 끼워서 청소한다. 이렇게 하면 빗자루 질을 하는 것보다 빠르고 깨끗하다. 더러워진 심은 그대로 버리면 된다.

▶ 육조 청소는 낚은 스티킹을 활용
육조를 청소할 때는 낚은 스티킹을 문쳐서 수세미처럼 사용하면 된다. 세제를 묻히지 않고 가볍게 문지르기만 해도 물 때가 깨끗이 제거된다. 그물코가 미세하여 육조에 흠집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 방충망 청소는 세탁 망 2 장으로
세탁 망 2 장을 문쳐서 물에 적신 다음 방충망을 양면에서 원을 그리듯이 닦으면 찌든 때까지 말끔히 제거된다. 망으로 망을 문지르는 것이 포인트. 벗겨진 때는 물과 함께 세탁망으로 빨려 들어간다.

▶ 린스 희석액으로 먼지와 정전기 방지
TV나 비디오 등의 가전제품은 마른 걸레로만 닦으면 금세 먼지가 달라 붙는다. 물에 린스를 몇 방울 떨어뜨린 희석액에 담갔다가 짜서 마른 천으로 닦으면 정전기가 방지되고 먼지도 끼지 않는다.

마음을 바꾸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일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물질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근심에 젖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 없고 기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기 쉬우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진언행자(다음 카페)



불교상식②

사랑 - "고뇌의 근본"

법애(法愛) - "자비"

불교에선 사랑을 '고뇌의 근본'이라 합니다. 이같은 의미에서의 사랑은 애욕(愛慾)인데, 이런 사랑의 근본은 인격적인 자기사랑이라고 보다는 본능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말라..."고 설하고 있는 <법구경>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갈애(渴愛)·진애(親愛)·애욕(愛慾)·애락(愛樂), 등을 쓰기도 합니다.

다. 하지만 불교에선 사랑을 반드시 이런 욕망이나 애욕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애(法愛)도 설하고 있습니다. '법애'란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자비(慈悲)를 말하는 것이죠.

-윤우채 기자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웅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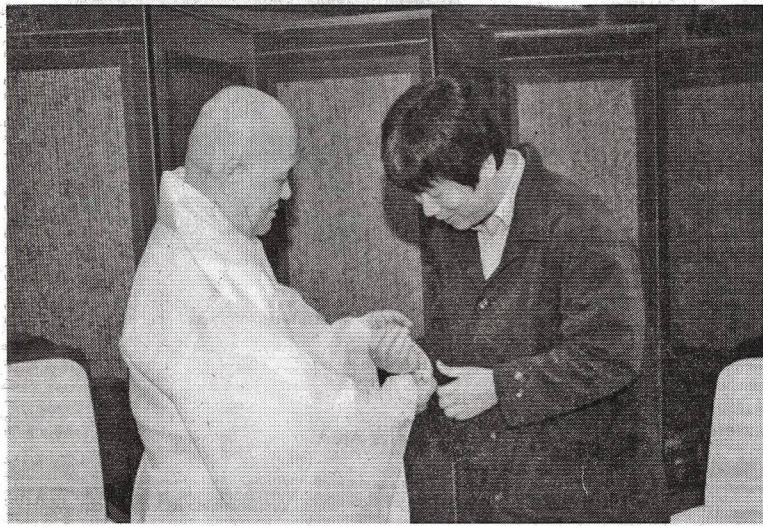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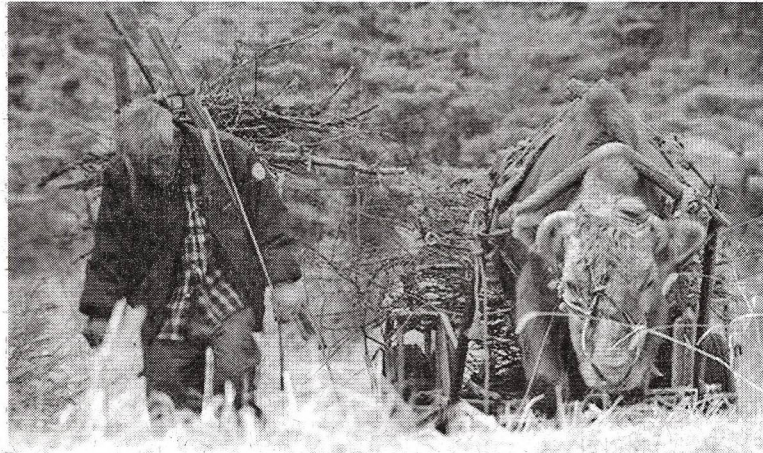


교계소식 '위낭소리' 이충렬 감독, 조계종 예방

지관 스님 등 총무원 단체관람에 감사 인사



◇지관 스님이 이충렬 감독에게 단주를 팔목에 걸어주며 격려하고 있다.



◇팔순 농부와 40살 소의 우정을 그린 영화 '위낭소리' 한 장면.

'위낭소리'의 이충렬 감독이 불교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격려를 받았다.

3월 13일 이 감독은 지관 스님 이하 총무원 직원들이 이 영화 단체관람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감사함을 표했으나, 오히려 환대를 받았다.

총무원측은 "이 감독은 총무원 전 직원들이 금일 시내에서 이 영화를 관람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본인이 불교 신자여서 더욱 고마워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 감독의 예방을 받고 "고생 많이 하셨다. 여기 저기서 칭찬이 많다"며 "오늘 우리 총무원들과 함께 잘 보겠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이어 "불교에서도 소를 찾는 과정을 깨달음의 길로 묘사하곤 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이 감독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됐다"며 "육식 없는 소를 통해 부처님이 가르치신 '보시'를 그리고 싶었다"고

회답했다.

1999년 기획 이후 2005년 소를 섭외해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한 이 감독은 "소를 만나기 전에 심신이 많이 힘들었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버린다는 말의 뜻을 알게 됐고 이제는 상당히 마음이 안정이 됐다"고 전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이 감독에게 직접 단주를 팔목에 걸어 주었으며, 목탁과 차를 선물하는 등 극진한 마음으로 격려했다.

'위낭소리'는 지난 1월15일 개봉한 독립영화로, 팔순 농부와 마흔 살 소의 보기도문 우정을 그려 개봉 2개월만에 관객 200만 명을 넘기는 돌풍을 일으켰다.

《위낭소리》는 이충렬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독립 영화이다. 2009년 1월 15일에 개봉했다. 경북 봉화 산골의 노인 부부와 그들이 키우는 나이 먹은 일소의 마지막 몇 년간의 생활을 담았다. '위낭'은 부리는 소나 말의 턱 밑에 매어 놓는 방울을 뜻한다.

불기 2553년 봉축행사 일정 발표

서울 연등법회 4월 26일 동국대~조계사 일대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등축제 등 각 지역 봉축행사에 대한 일정과 계획이 발표됐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봉축위)는 3월 24일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연등축제 행사 일정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봉축행사들은 표어인 '나눔은 기쁨 함께 하는 세상'에 맞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젊은 층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가는 부처님오신날 △세계인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을 행사 방향으로 잡고 올해 행사가 꾸며진다.

올해 봉축행사는 오는 4월 14일 서울시청 앞 접두식으로 시작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전통등 전시회는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 삼성동 불은사에서 개최된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청계천 등 전시는 4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등축제 전야제는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인사동과 일원에서 진행된다. 메인 행사 중 하나인 불교문화마당은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계사 앞길에서 열리며, 어울림마당은 26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연등법회를 비롯한 화합한

마당은 26일 오후 4시 동국대운동장에 펼쳐진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제등행렬은 동국대학교 운동장을 출발해 장충공원-구 동대문운동장-동대문(홍익지문)-종로 6·5·4·3가-종로 2가 코스의 약 4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장엄물과 각 종단 대표자들의 행진은 동대문에서 대기한 후 합류해 행렬을 이어 나가게 된다.

또한 제등행렬 코스가 길어진 만큼 종로 전 구간을 축제 한 마당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봉축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봉축위는 종각에서 탑골공원까지 마련했던 관람석을 1만 5천석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대동한마당은 연등행렬이 마무리되는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종각사거리에서 펼쳐진다. 이 시간 장엄물은 종각사거리에 전시된다.

각 지역 봉축행사들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먼저, 대전불교사망연합회(회장 진철)는 4월 25일 오후에 제등행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서대전 광장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소년 및 어린이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글짓기·그림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 이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부불련)는 4월 17일 부산역광장 일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축하공연으로 연등축제의 포문을 연다. 4월 26일에는 부산 구덕종합운동장에서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제등행진을 진행한다.

이날은 법회 외에도 연꽃문화제·한마음체육대회·어르신들을 위한 무차만발공연·인기가 수 축하공연 등의 다양한 어울림 한마당이 준비된다. 이에 앞서 부불련은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부산 광복로 일대에서 불무도 시연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문화 공연과 연등 만들기 등의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운영한다.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허운)는 4월 15일 대구 반월당 일대에서 단주·다종이인형만들기 등 약 70여 개의 체험부스를 꾸려 달구벌의 연등축제 열기를 더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부스를 마련해 따스한 자비의 온정을 전달한다.

▶울산광역시 봉축위원회(위원장 덕진)는 4월 28일 울산종합체육관에서 봉축 법요식을 진행 하고 울산롯데백화점 광장까지 제등행진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4월 12일 태화강 둔치 일대에서 시민노래자랑 각종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봉축 점등식을 연다. 특히 이날 점등식에서는 태화강변에 시민들이 직접 소원을 담은 유등을 태화강에 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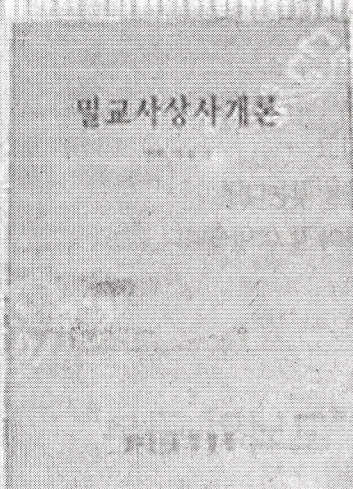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원법회를 4월 20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봉행한다. 이날 기원법회는 1백명의 스님들이 천수바라·도량계·관불의식·육법공양을 시연하는 식전행사로 시작되며, 이어 부처님오신날 기원법회와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청주청원불교연합회와 옥천불교연합회는 4월 26일과 27일 각각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광주·전남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성오, 영조)는 4월 19일과 20일 광주 문화전당과 광주광역시 청내 행사광장에서 각각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한다. 4월 28일에는 연등법회 및 제등행렬을 펼친다. 식전행사로 전통놀이 시연 및 풍선아트 등 체험의 장이 광주공원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도연합봉축위원회(대회장 원종)는 4월 25일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연합봉축법회를 봉행하고 제주종합경기장에서부터 탑동광장까지 제등행렬을 벌인다. 이어 4월 27일에는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불교연합회장제를 개최해 봉축 열기를 한껏 더한다.

한편, 봉축위는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물인 가로연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봉축행사 홍보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간 관리가 잘 안돼 문제 제기가 많아 온 탓이다. 이에 봉축위는 △새등 달아 깨끗한 이미지 구축 △전선 안전하게 설치 △상시 관리자 두기 △구청에 정식 허가 받기 △이웃종교와 마찰 주의 등의 지침을 각 사찰과 사암연합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순길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


밀교사상사개론

국판 / 컷가 15,000원 / 불교총서총출판부

속자대명왕진선<솜마니반매종>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으로 본 것을 지나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인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연경국판 / 컷가 7,000원 / 불교총서총출판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불교, 교양으로 읽다

국판 / 컷가 15,000원 / 민족사

한국불교의식의 대명사인 천수경에서 왜 처음과 끝이 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비법을 밝히고 있으며 본 심오점을 통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국판 / 컷가 8,000원 / 순주사

불교방송, 상암DMC사업 난항

이사회서 성과 없으면 사업 폐기 결의

불교방송(사장대행 최명준)이 경영난 타계와 회사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사업이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영담)는 3월 1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8차 이사회를 열고 지지부진한 상암 DMC사업을 3개월 뒤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자동 폐기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DMC에는 KBS미디어, MBC, SBS, YTN, 한국경제TV, 불교방송 등을 비롯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 등 대부분 신문·방송사들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경우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위원회 첫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도 부진한 성과를 들어 성과가 없을 시 사업 폐기를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현재 3월 말로 잡혀 있던 계약 기간을 3개월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또한, 이사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기로 결의했다. 경영 진단은 불교방송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비롯해 판권 뉴스와 IPTV 그리고 상암 DMC 종합미디어센터 추진 등의 사업들과 시장복무규정도 모두 컨설팅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사회는 컨설팅을 토대로 한달 후에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사회는 총 매출 155억 8천여만 원, 총 지출 163억 3천여만 원, 당기순손실 7억 500만 원으로 보고된 2008년 결산안을 통과시키고,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이사 영입 등의 안건은 보류했다.



제2회 세계불교포럼 중국 우시서 개막 '세계화합과 모든 인연의 화합' 대주제



◇3월 28일 세계불교포럼 개막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화합과 모든 인연의 화합' 대주제로 한 제2회 세계불교포럼이 3월28일 중국 장수성(江蘇省) 우시(無錫) 영산법궁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중국불교협회와 국제불교회, 홍콩불교연합회,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불교포럼은 3월 2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입장식과 개막식, 대회발언, 중국사찰공양체험, 불교문화전람회 개막식 및 참관, 환영 만찬, 영산의 밤 공연, 포럼 조별 발표, 깨달음의 길 공연, 분과토론, 폐막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2일까지 중국 우시와 대만 타이페이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28일 열린 개막식은 교향합주를 시작으로

'세계화합과 모든 인연의 화합'을 주제로 한 동영상 관람, 기도식, 합수(合水), 인사말, 각국 불교지도자 기조연설 등으로 진행됐다.

중국불교협회장 이칭(一誠)스님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이번 세계불교포럼은 중국과 대만불교가 화합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의 큰 잔치"라며 "법회가 증만해 이번 행사의 주제에 걸맞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칭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인사말에서 "최근들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상호존중, 조화 등의 미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면서 "개방

과 포용, 중생평등의 종교인 불교가 자비로써 그 역할을 펼쳐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기조연설문을 통해 "제2회 세계불교포럼의 주제는 제1회 포럼에서 채택한 보타선언문의 뜻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16개 분과토론을 통해 모은 귀중한 지혜들은 지구촌의 안정과 세계인류 평화를 위한 문명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계불교포럼에는 전세계 46개국 1300여 명의 불교지도자와 학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범등 스님, 사회부장 세영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 해인총림 해인사승가대학장 법진 스님 등 사부대중 41명이 동참했다. 또한 전세계 75개 언론 및 방송매체 240여 명의 기자가 이번 대회를 취재해 전세계인에게 보도했다.

29일 열린 분과토론은 '법보의 빛-대장경의 정리, 보호와 연구' '불교교육의 기회와 도전' '불교수행학습 체계의 건립과 반성' '불교음악문화의 보전유지와 창조적 발전' '불교 전파와 민족성' '불교와 과학' '불교의 자선활동' '불교와 현대성' '불교의 정신건강' '불교의 조직관리' 등 16개 소주제로 마련되었다.

군위군, '삼국유사 마케팅' 눈길 인각사 일원 '삼국유사 문화랜드' 조성



◇군위군청이 보유한 대형버스 외부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문구를 새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경북 군위군(군수 박영언)이 '삼국유사의 고장은 군위' 마케팅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국보 제306호인 삼국유사가 700여년전 군위 인각사에서 보각국사 일연 스님에 의해 편찬됐다는 점을 알려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위군은 3월 26일 군위군청 내 새마을과에 '삼국유사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앞으로 홍보 및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군위군은 3월 21일 대구 경북연구원에 고로면 화북리 인

각사 일원 조성될 '삼국유사 문화랜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또 학술·종교·문화·언론 등 다방면에 걸친 삼국유사 전문가 13명으로 '삼국유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 중으로는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차량 통행이 잦은 중앙고속도로 군위IC와 군위체육공원 등 새마을과에 '삼국유사 답답'을 설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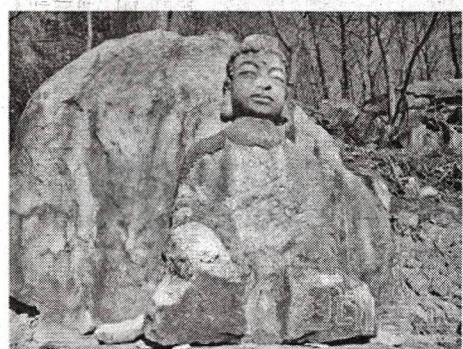
아울러 예산 1억 5000만원을 배정해 대구·군위 운행 시내버스 및 택시 140대 외부에 '삼국

유사의 고장 군위' 광고판을 부착하고, 군위읍 동부리 군위교육문화체육회관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 시가집(항가, 찬시 등)과 군위 홍보 안내책자를 각 3000부 제작, 전국 지자체 및 공공 도서관, 출장인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어 470여 군 전체 공무원들의 명함에도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문구를 새겨 넣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삼국유사가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군위에서 집필된 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삼국유사와 유사점은 군위가 국민들로부터 함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 후기의 고승으로 경북 경산에서 출생한 일연 스님(1206~1289)은 노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군위 인각사에 머물면서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편찬(총필월 7년·1281년)하고 그곳에서 입적했다.

돌부처 소유권 두고 사찰-주민 갈등 "방치된 것 보고 안타까워 사찰로"



충북 음성군 한 사찰과 인근 주민 260여명이 돌부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있다.

3월 24일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군 음성읍 평곡 4리 수정사 주지 세진 스님은 2008년 12월 30일 마을 입구 서낭당에 있던 돌부처를 사찰 경내로 옮겼다. 돌부처는 1965년 마을 뒷산 계곡 부근에 묻힌 채로 발견된 뒤 주민들에 의해 서낭당으로 옮겨졌던 것.

마을 수호신으로 돌부처를 모시던 주민들은 마을총회 결정 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고, 이를 음성군청에도 알렸다.

음성군은 돌부처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문화재청 자문을 거쳐 지난해 "동산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만큼 2월 18일까지 상복귀하라"고 사찰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세진 스님은 "돌부처가 방치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사찰로 가져온 것"이라며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민들이 왜 이제 와서 돌부처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뒷산 돌부처를 마을로 가져다 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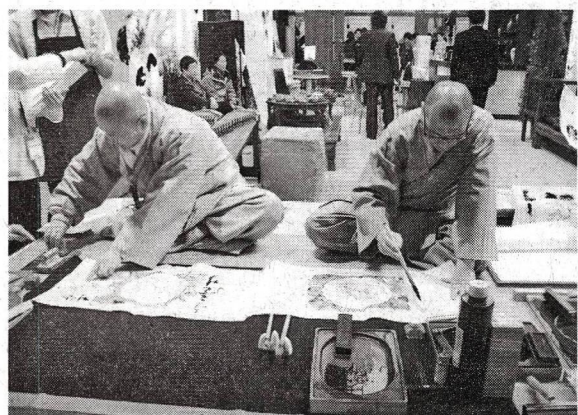
장만식 씨 가족의 허락도 받았다"며 충북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돌부처 소유권 문제가 행정심판 안건에 오르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음성군은 "돌부처를 강제로 갖다 놓을 수는 없다. 일단 행정심판과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음성군과 경찰이 사찰측 편에 서서 자신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3월 31일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박노만(65)씨는 "돌부처 도난 신고를 하자 경찰이 묵살했고, 음성군도 돌부처 원상복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집회를 열어 사찰 비호세력들을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獨국제박람회서 최우수상 19~22일 프랑스 박람회 참가



◇붓글씨 시연

한국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가 세계인이 가장 관심을 보인 여행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베를린 국제박람회장에서 개최된 ITB(Internationale Tourismus Bourse)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한 결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세계 최대 박람회인 ITB에서 지난해 아시아·오세아니아주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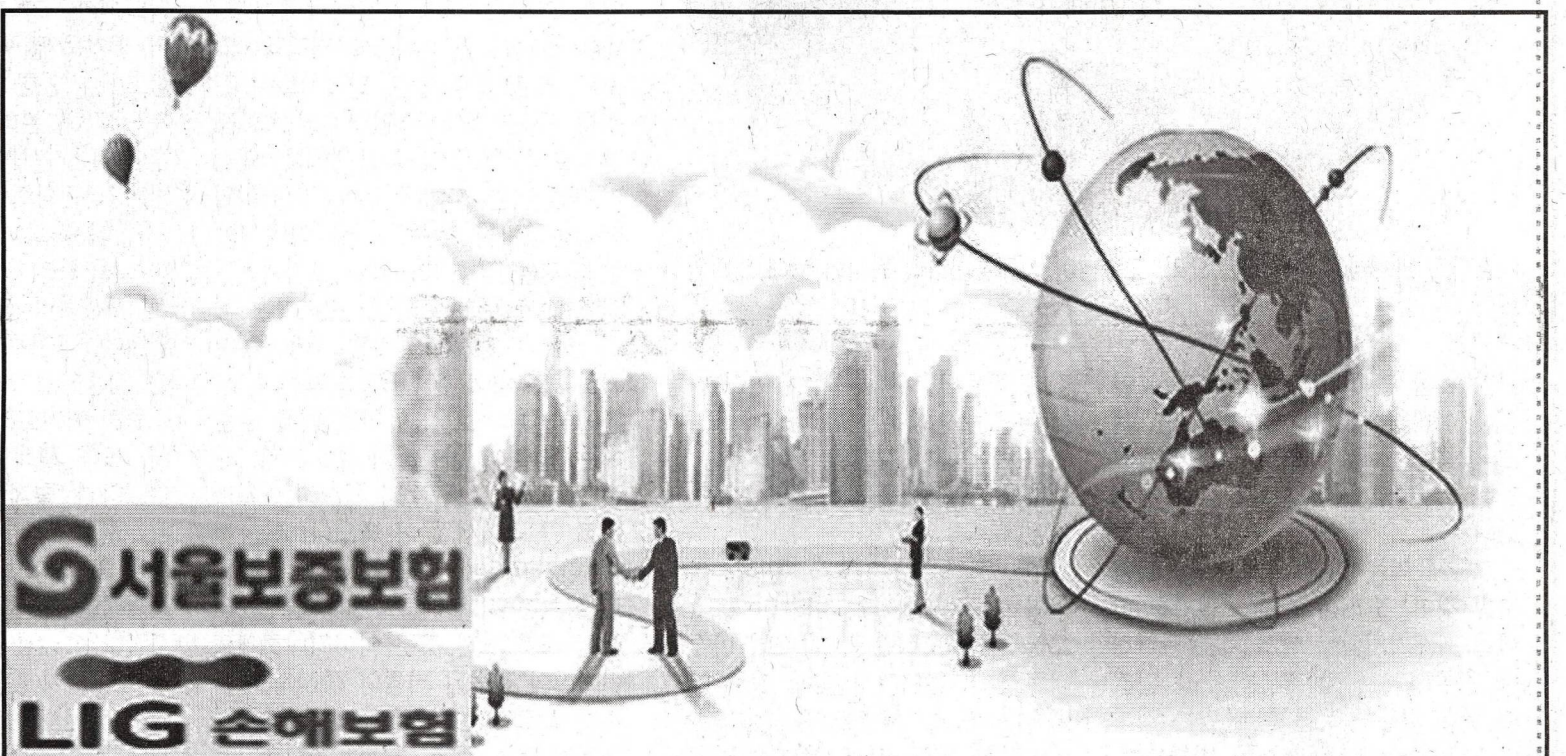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홍보 부스

의 영예를 안게 된 것. 올해 박람회에는 180여개국 11,000여 관람객이 참여했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사무국장 진경스님을 단장으로 실무진을 파견하고 베를린 본부사(주지 병오스님)와 공동으로 인경, 붓글씨, 연등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내 템플스테이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관람객과 여행사 등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템플스테이 부스를

찾았다. 진경스님은 "한국문화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의 수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불교문화사업단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09 프랑스 박람회 MAP(Le Monde Paris)'에도 참가해 템플스테이를 홍보했다.



서울보증보험 LIG 손해보험.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MetLife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9921-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www.metlife.co.kr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서울대은퇴설계전문가과정수료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MDRT, AFPK, 우수인증설계사 0813720708

■ 기고 / 중국, 중국인 이야기②

역사적 산물 - '중국 먹거리 파동'

이정화 (총지사)

중 국인들은 아침을 집에서 먹지 않고, 사먹는 편이다. 그래서 아직 어둠이 채 가 시지 않은 시간에 골목마다 어김없이 아침을 파는 간이 식당이나 리어카들이 줄줄이 들어서게 된다. 잠옷 차림에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산책 하듯 나와 가족들의 아침거리를 사서 돌아가거나, 바쁜 출근길에 골목 한 귀퉁이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한 끼 해결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다. 나 또한 급하게 아침에

고, 양상추(또는 상추)를 얹어 먹는 '계란빵'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다. 이 계란빵을 유난히 좋아했던 나는 종종 계란빵으로 아침을 대신하고는 했는데, 처음에는 중국인 인줄 알았던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보였던 계란빵을 파는 젊은 부부와 친해져, 계란빵을 먹으러 갈 때면, 구워지길 기다리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보통 새벽 4시 30분이면 나와 대략 12시쯤이면 가지고 나왔던 재료가 다 떨어져 장사를 파하는 부부. 어느 날, 나는 아침을 먹고서,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집을 나서다 계란빵 생각이 나서 그 부부가 있는 리어카로 다가

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문제는 그렇게 씻지도 않은 양상추를 손님이 보는 앞에서 뜯어서, 그 양상추를 계란빵 사이에 끼워 넣어 주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달라고 해놓고서, 안 산다고 할 수도 없어서 받아 듣기는 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버렸던 기억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탕에서 각종 재료 들에 엉켜 있는 긴 머리카락 한 줄이 보이기에, 종업원을 불러서 뭐라고 했더니,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머리카락을 썩 잡아 빼고는 자신의 앞치마에 쓱쓱 문대어 버리고, "이제 됐죠?"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했던 일.

?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을 몇 번 겪은 후에는, 아예 위생 상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듯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알아서 빼버리고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했었기에, 유학생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과연 이러한 음식들을 먹고 제 수명을 다할 수 있을까, 몸살 병에 걸려 고생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앞서 언급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일들 외에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골판지 만두(나중에 자작극이라 보도 되고, 해당 방송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진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이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에, '조작'이라고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멜라민 파동 등 열거하기도 숨이 찰 만큼 다양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학을 마칠 무렵에는, 일일이 반응하기에도 지쳐, 이런 음식 먹고 병 걸려 죽으나, 다 가리고 안 먹어서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 한가지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중국에서 살며 내가 느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먹거리와 관련된 파동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이, 중국인이 실제로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먹거리를 중요시하고, 신경을 쓰는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식품과 관련된, 사



▲즐거먹던 계란빵의 실제. 그래도 맛은 정말 좋다. 하루에 보통 300~500개가 팔린다고 한다.

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생 문제들의 중심에 항상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건강' 보다 '이익' 이 우선

이는 '이(利)'에 밝은 그들의 전통 사상, 이와 더불어 1980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 부응하지 못 하는 국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운 인구수에 의한 생명 경시 풍조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나름 생각해 본다. 세계2차 대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전으로 국민들은 '사람다운 삶'이 아닌 '생존'에 급급한 삶을 꾸려가야만 했고, 그 후 집권한 공산당의 교육은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공산주의 사상, 이념 확립'에만 집중되었기에, 타인도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바탕이 된 '윤리, 도덕 의식' 등은 교육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 시작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또 다시 빈곤과 이념을 위한 이념대립의 극한으로 치달았다. 그 후, 사람다운 삶을 주장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에는 인민들이 너무 굶주렸고, 혼란에 빠져 있었기에, 권력을 잡게 된 등소평은 그 굶주린 배를 채우고, 다시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었기에, '흑묘백묘' 이론을 내세우며, '개혁개방'을 실행했고, 이는 인간이 마

람이 워낙 많잖아. 별별 사람 다 있지.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넘쳐나는 인구수에 있다고 귀결해 버리는 그들만의 사유(思維).

중국발 위생, 식품, 건강 관련 문제들은, 문제가 되었던 물품들을 만들었던 중국의 일부 업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중국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윤리 의식 결여와 '이익'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철저한 이익 추구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상자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쉽사리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아 지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위생관념과 '웰빙'에 대한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 머지 않아 '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위생관념과 윤리 의식 확립이

판히 지녀야 할, 염두에 두어야 할 윤리 의식은 보류한 채, 오직 '성장'만을 주도하는 불균형적인, 질풍발이식의 발전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먹거리와 관련되어 지금 문제시 되고



▲왕푸징 사오초지(小吃街)에서 파는 갖은 꼬치들. 맨 왼쪽에 있는 번데기갈이 생긴 꼬치는 먹어봤다. 맛은 그저 그랬다.

있는 그들의 윤리 의식 결여에 대한 비난과 건강한 삶에 대한 주장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생소한 개념일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인 친구들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면, 그들의 마지막 대답은 항상 동일하다. "에이, 방법 없어. 중국에는 사

가능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Tip : 후, 중국으로 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장염약과 소화제를 준비하시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신기하다고 사 먹는 일은 삼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 교수님이 준비하신 요리. 교수님이 상해출신이라 음식의 상해 스타일이었다.

나가야 할 일이 있거나, 느즈막히 일어나 아침을 차리기 귀찮을 때면, 어느 중국인들처럼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가 아침을 해결하곤 했다.

그렇게 먹는 아침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요티아오'라는 밀가루 반죽을 파배기처럼 꼬아서 기름에 튀긴 빵 종류와 도우장이라는, 우리 나라의 두유 같은 음료를 함께 먹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밀가루를 반죽하며, 그 사이사이에 기름을 발라 증을 내어, 납작하게 밀어 기름을 두른 팬에 구우며 그 틈 사이로 계란을 풀어 넣어 구운 후, 두 세가지 양념을 바르

갔다. 그런데, 수북이 쌓여 있어야 할 상추(또는 양상추)는 보이지 않고, 부인되는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있는 양상추를 다급히 뜯어서 놓고 있는 게 보인다.

"어, 장사 끝났어요?" "아니,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팔았어. 오늘 여짜나 바쁘지, 밀가루 반죽도 너무 일찍 떨어져서 집에 가서 다시 반죽해 오고, 상추도 푹 떨어져서, 봐, 지금 저기 가서 사가지고 왔잖아.", "아,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막 사가지고 와서 뜯는다는 양상추를 보니, 채소를 팔고 있는 옆 좌판에서 방금 사가지고 와, 씻지 않은 것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명왕 진언 수지하여 소원성취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은 진언 중에 으뜸입니다. 육자진언을 외우거나 몸에 지니면 무진번재와 청정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무량한 불보살님과 호법신장님들이 옹호하기에 모든 재액들이 소멸되고 내외가 평안해 집니다.



차량스티커(무료)



금박다라니 ₩ 3,000



금박다라니(뒷면)



차량용 염주 ₩6,000(자주색, 카키색)



차량스티커(무료)

① 852

수행의 길에서

설법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뒤 돌아 볼 틈도 없이 행하니 내 앞을 지나 저만치 가버린다.

월초불공만 끝나면 한 달은 획 지나가버린다. 올해 들어 벌써 월초불공이 세 번 지나가고 곧 네 번째 월초불공이 돌아온다. 곧 4월이 시작된다. 새해불공을 한 것이 었 그제 같은데 후다닥 3개월이 지나가 버렸다. 새벽정승, 공식시간, 매일 보는 보살님들 그리고 저녁정승 큰 변화 없이 항상 똑같은 일과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은 조금도 지루함이 없이 참으로 잘도 지나간다.

시간에 대한 이런 느낌은 아마 종단에 몸담고 있는 스승님이나 보살님 모두가 비슷하게 체험하고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지금 유독 나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 것은 아마도 지난 달부터 정각사에 근무하는 모든 승직자는 월초불공기간 중 한 번씩 해야 하는 '설법'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도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난 3월 월초불공기간 중 설법해야할 순서가 정해지고 나는 몇 날 며칠을 이책 저책을 뒤적거리고 인터넷을 헤매고 고민하고 나서 겨우겨우 20분도 채 안 되는 분량의 준비를 가지고 설법에 올라섰지만 그나마 준비한 것도 제대로 못한 채 두서없이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가 조금 전에 설법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긴장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쳤다

는 안도감과 다음번 월초까지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안심했는데 벌써 그 한 달이 종알같이 지나가고 다음 주면 다시 4월 월초이고 나는 다시 설법대에 서야한다. 정각사는 우리종단에서 가장 크고 교도수도 가장 많다. 특히 월초 때에

게 내 앞에 앉아있는 각자님, 보살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 어렵고 난감하다.

정각사는 1년 365일 매일 공식법회를 한다. 그리고 법회의 집공은 정각사 주교가 하고 그때마다 설법을 한다. 10분이던 30분이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는 아래층은 물론이고 위층까지 각자님 보살님들이 뻥뻥하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설법해야한다는 것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제 겨우 2년을 갓 넘긴 신출내기 전수인 나에게는 더더욱 어렵다.

설법을 하기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준비한 것을 설법대에 올라서서 또박또박 조리 있

다. 다시 말하면 정각사 주교는 월초 때 우리 같은 보조승이 설법하는 며칠을 빼고는 1년 내내 경전을 읽고 설법을 설명하면서 설법을 한다. 정말 나 같은 햇병아리 승직자는 생각 할 수도 없는 내공이다.

주교 정사님이나 전수님은 설법대에 오르면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조금의 막힘이나 어색함 없이, 특히 전수님은 특유의 힘이 가득한 목소리

로 술술 막힘없이 말이 나온다. 그때 그 설법을 듣는 교도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수긍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거나 혹은 말씀하시는 스승님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보살님도 있다.

도대체 얼마의 수행정진과 내공이 있어야 저렇게 할 수 있는 말인가? 나는 언제쯤 저 정도의 내공을 쌓을 수 있을까?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고 저절로 법력이 쌓이는 것은 아닐진대 참으로 걱정스럽다.

마침내 손살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4월 월초불공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설법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런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쩔어쩔 해온다.

그래도 옛날이야기 수준도 안 되는 어설픈 나의 설법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잘 했다며 격려해주는 우리 정각사 보살님들이 있어 나는 오늘밤도 졸린 눈을 비비며 이책 저책 뒤적이고, 모니터 앞에 앉아 인터넷 불교 사이트 이곳 저곳을 열심히 기웃거리며 설법준비를 한다.

학창시절 공부를 지금 설법 준비하는 노력의 반만 했어도 사법고시는 문제없이 합격하여 지금쯤 판검사 되고 남았을 것 같다. 정각사가 지금 나를 공부하게 만든다.

자인행 (부산 정각사)

세상사는 이야기

'봄의 향기'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왔다.

해마다 찾아 오는 봄이지만 한번도 똑 같은 봄은 아니었다. 봄의 색깔도 모양도 느낌이 다 다르다. 올해의 봄은 어느 날 황사와 함께 찾아왔다. 겨울 동안 풍뎠어버린 몸과 마음을 눈 녹이듯이 녹여주는 화롯불 같은 따뜻한 봄은 어디로 가 버리고 온 세상이 흠뻑 젖어 뒤덮여 부엌에 변해버렸다. 내 마음까지도 황사로 뒤덮여버린 느낌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황사가 자주 있을 것이라는 예보도 있다.

따뜻하고 밝고 화사한 봄을 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봄바람이 오늘은 무척 기다려진다. 봄을 시샘하는 새침데기 봄바람은 알뜰도록 까칠하지만 꽃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전령사로 환영을 받고 있다.

전세계가 온난화의 영향으로 생태계

변함이 우리들을 그들의 세계로 저절로 이끌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온갖 아름다움과 화려한 색채로 치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들이 출다고 온갖 두터운 외부 속에 몸을 감싸고 있는 겨울 동안 그들은 풍뎠어버린 대지 위에 곳곳이 버티고 서서 그들의 몸 속에서 온갖 색깔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어느 곳에 빨강 노랑 초록 빛깔들이 숨어 있었을까?

그들은 고운 색깔만 준비한 것이 아니다. 싱그러운 노란 향기와 붉은색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연분홍 향기와 싱그러운 연두 빛 향기도 준비하고 있었다. 예쁜 꽃과 함께 화려한 향기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줄 날을 위해 그들은 긴 겨울 동안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다.

나도 서둘러야겠다. 칙칙했던 내 마음의 황사를 빨리 걷어내고 봄의 아름다움

모르는 사이 봄은 내 옆에

가 변하고 있다. 계절이 자기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봄이 오다가 멈춰서고 아직 겨울인 줄 알았는데 봄인 것 같고, 꽃들도 어릿어릿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꽃피는 시기가 매년 앞당겨 지고 있다. 올해는 열흘 정도 빨리 핀다고 한다. 남쪽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다고 한다. 산수유도 활짝 피어 온통 노란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 나도 꽃을 찾아 남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며칠 전 매년 있는 단합대회 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중미산 휴양림'에 다녀왔다. 아직도 그 곳 높은 산에는 눈이 쌓여 있고 깊은 골짜기에는 얼음이 그대로 있었다. 꽃이 피려면 많은 날이 필요한 것 같아 아쉬웠다. 하지만 나무들은 물을 잔뜩 머금어 새싹이 곧 터질 것 같았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모든 나무들이 물이 올라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들을 환영하고 있다. 그들은 벌써 봄 잔치 준비를 끝내고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곧은 땅을 밀어내고 뾰족뾰족 새싹들이 살포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무슨 힘이 있어 그 어디든 어린 새싹이 무거운 대지를 들어 올리는 걸까?

나무와 풀들의 세상인 자연은 온갖 신비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신

다운 빛과 고운 향기를 마음껏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다. 스스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만이 봄의 화려한 색깔과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생각만으로 벌써 밝고 화사하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나에게 찾아와 주었다. 몸과 마음이 봄과 하나가 된 듯 가볍고 밝아졌다.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 지더니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다. 아직 이 곳은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봄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짧은 팔의 티셔츠 차림에서 오히려 초여름이 아닌가 착각하게 된다. 모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 쫓기고 대지의 봄기운과 향기를 집안으로 받아들였다. 열린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본 곳에 뚝딱에도 노란색 꽃망울을 막 터트리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나무가 보인다. 잊고계까지만 해도 피지 않았던 꽃이 언제 이렇게 피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 봄은 이미 오래 전에 내 옆에 찾아와 있었다.

서둘러 꽃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겠다. 먼 곳이 아니라도 좋다. 꽃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좋다. 마침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음 모임에 과천 미술관 옆으로 뾰족 보러 가자고 한다. 물론 대 찬성이다. 그날이 기다려진다.

알림

- ▶ 4월 8일은 49일 상반기 진흥국가 불공 회향일입니다.
- ▶ 13일부터 16일까지 춘계 강공을 봉행합니다.
- ▶ 26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가 열립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동국대에서 조계사까지 불공 제등행진이 열립니다.
- ▶ 19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청 대강당에서 통리원 이수협 교무 결핵식이 있습니다. 결핵을 축하합니다.

기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만들기"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부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해서 정책을 펴다보니 나라의 체질이 허약해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들은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원칙을 지키고 근본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이 밭지라는 나라를 치려고 했을 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밭지국 사람들의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밭지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가 밭지국 사람들은 법을 받들어 존중하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나라가 진정으로 부강

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는 바로 공평한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며 누구나 평등하게 법적용을 받습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은 바르지 못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이 아무래도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에 관련되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법조문에 의거하여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너무 무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약한 사람들에게만 호되게 적용되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법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법을 적용하여 벌하려면 재수 없어 법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분명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자기는 희생양이라니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 벌을 받았던 사람도 어느 날 권력을 잡고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법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회가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러한 풍조는 어느 특정한 부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또 그런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 래놓고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존중하고 또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걸 맞

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용서 받는 사람이나 용서 하는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승단의 계율을 어기는 자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눈감아 주었다면 승단이 유지되었겠습니까?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서려면 우선 법 적용이 올바라야 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권력 있고 돈 있다고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썩은 사회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각자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법을 존중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는지를 돌아켜 봐야 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법 경시 풍조가 지금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국민 각자는 거기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켜보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진정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화령 (중앙교육원장)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봄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봄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어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봄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 031) 915-3856 정진욱 실장 (승우섭 보살 섬네)

홈페이지 : bomstudio.com



“미래 지도자 육성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 - 동해중학교”

“불교총지중 종립사학, 전인교육의 장(場)”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의 발족

존경하는 교장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학교재단 및 종단 관계자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개인의 영광이 모든 우리 동문가족들에게 결코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우리 동해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여 동해의 중흥을 이루는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도 (동해중발전위원회 위원장)

3. 미래의 인재양성 요람의 구현
4. 동해 중학교 발전기금 조성
5. 실력있는 앞날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공부하는 학교 문화 창조
6. 총동창회 홍보 강화
7. 재단과 종단 및 학교와 총 동창회간 협력 관계 강화
8. 유능한 동문 인재 육성
9. 멘토링의 확대
10. 동해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상 정립입니다.

이러한 일은 진정한 의미의 동해 주인인 우리 동문 모두가 주체가 되어 지금까지의 총동창회를 조직적인 유기체로 변화시킴으로써 동문들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단결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과거의 명문 동해로 재건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해의 찬란했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1만 6천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총동창회를 바로 세워 조직을 강화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각계각층의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튼튼한 총동창회, 힘있는 총동창회, 비전있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교의 종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문 동해로 재건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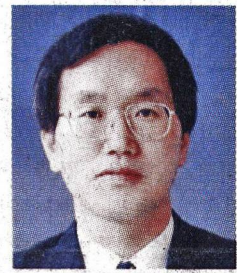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에 깊게 새겨진 상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한 상처받은 동해의 위상을 다시 과거의 빛나는 전통으로 구현해 나가는 현명함으로 극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동해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언젠가는 꼭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감히 10가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1. 총동창회 조직 강화
2. 동해 커뮤니티 조성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우리 동해중학교의 발전과 무한한 성장을 위해 물질 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을 비롯한 종단 및 재단 관계자 및 총동창회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복했던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총동창회 임원 및 종단 관계자 및 전직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발전위원회의를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김명진 (동해중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을 깨뜨리는 의미있는 날로 자리 매김하면서 옛날의 명성을 되살리는데 미력하나마 작은 힘을 바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협의한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협의 되어, 학교 현장은 물론 종단 및 재단, 총동창회 임원단에도 여과없이 전달되어 우리 동해중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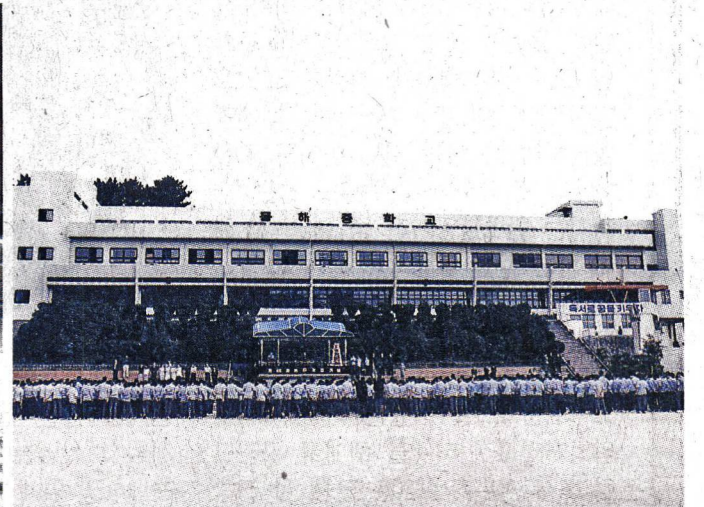
여기에는 16,000여 졸업생들과 700여 명의 학부모님, 지금까지 본교를 거쳐간 100여명이 넘는 교직원과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내용 하나 하나가 우리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소 소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총동창회 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교직원과 학부모, 종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창조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위한 교육의 틀 마련”

저는 앞으로 여러 위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업무에 진력하면 서도,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왔던 업의 틀

이번 협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어 우리 동해중학교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틀을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우리 동해중학교 발전에 대한 권익신장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립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 발족

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가 3월 11일 동해중 총동문회(회장: 이진복 국회의원)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종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김진도 동문회 수석부회장, 부회장에 김명진 동해중학교 교사를 각각 선출하였다. 김진도 동해중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속에서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해중학교가 미래의 바람직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이자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일하는 학교 문화 창출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할 것이다”고 하였다.

김위원장은 이와함께 “과거의 훌륭한 선생님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상기하며, 열정적이고 유능한 선생님들에 대한 후원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창조적 가치관 지닌 지도자 육성”

동해중학교는 부산 동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7년 3월 개교했다. 교육목표는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상 정립과 창조적인 가치관을 지닌 미래의 지도자 육성’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할 줄 아는 창의적 인간, 남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협동하는 인간,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상 정립을 세부지표로 하고 있다.

현재 1학년 7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8학급, 등 총 2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 631명, 교사는 47명이다. 교훈은 창조, 협동, 경애, 교목은 보리수, 교화는 장미다.

▶“21세기 선도할 신지식인 육성위해 전 교직원 헌신의 힘 기울일 것”

특색사업으로는 다양한 독서교육활동을 통한 책임은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이 있다. 독서교육사업은 즐거운 책임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을 함양하고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갖게하며 새로운 독서 문화 창출과 즐거운 교실 만들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해중학교 김문수 교장은 “그동안

이어온 전통을 바탕으로 사학의 명문 동해중학교를 만들기 위해 동해 가족 여러분과 헌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교장은 또 “본교는 불교총지중에서 유지경영하는 종립사학으로서 불법을 생활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21세기를 선도할 신지식인 육성을 위해 전 교직원과 재학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동문회가 헌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윤우채 기자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창조
협 동
경 애
교 목 보리수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